

## 그래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

고은

그래도 태어나야 한다  
 이 모독당한 산야에 태어나야 한다  
 아직 바람이 죽지 않았다  
 바람의 탄생일이  
 너의 탄생일이다  
 태어나야 한다  
 태어나  
 바람 속에서 첫울음을 울어야 한다  
 석달 열흘 바람쳐  
 비바람쳐 살아야 한다  
 아,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이유인 아기가 있다  
 아장아장 아기 이빨로 돌아나  
 장차 수많은 울음으로 날이 밝아야 한다

그래도 꿈꾸어야 한다  
 이 파괴당한 마을에서 늙은 연어들 막혀버린  
 산기슭에서  
 모든 배반당한 꿈  
 빼앗긴 꿈을 찾아야 한다  
 너에게 남은 꿈 있다 몸 뒤척여 그 꿈을 꾸어  
 야 한다  
 하늘이 있다  
 아직 저녁 노을이 있다 지상(至上)의 밤바다  
 가 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생명이란  
 얼마나 독점이나

얼마나 집착이나  
 죽음의 인질인 생명이란  
 그 얼마나 비겁한 정치더냐 이데올로기더냐  
 폐기된 물레야  
 폐기된 물레방아야  
 폐기처분된 이웃들아  
 그래도 한줌 흙 속의 자디잔 묵숨들의 숨소리  
 들리는  
 너의 고막으로  
 잠들어라 깨어라  
 다음날 너의 눈동자  
 아침 햇살에 놀라  
 아침 햇살 알알이 담은  
 거미줄의 이슬 부채에 화들짝 놀라  
 하루를 살아야 한다  
 가장 작은 너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바위의 슬픔으로  
 풀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노래해야 한다

영원이란  
 무한이란 탐욕이다  
 오로지 너의 한계가 너 아니냐  
 그래도 바람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 배신당한 도시의 밤에  
 바람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다른 세상의 소리인  
 비 오는 소리로  
 너의 한쪽 귀가 떨어져야 한다

오직 귀만이 평화이다 긴 묵념이다  
 언어 몇십년  
 그래도 그 언어 오용과 남용 폭력 무릅쓰고  
 너의 언어가 너 아니냐  
 명사들을 지켜야 한다  
 없어진 산꼭대기 내려다본 고향 마을을  
 없어진 혼을  
 없어져  
 문명이 되고 만  
 장차 문명의 해골이 되고 말  
 도시의 밤에 사라져가는  
 동사들을 부사들을 슬픈 형용사들을 지켜야  
 한다  
  
 그래도 일어서야 한다  
 이 과잉의 땅에서  
 이 소외의 땅에서  
 맹수의 포효만이 들리는 땅에서  
 작은 짐승들

작은 늪의 벌레들  
 숨죽인 어둠속에서  
 싸이버 속에서  
 역사시대 내내  
 다져지고  
 다져졌다가  
 다시 다져진 무한욕망 속에서  
 자본의 지층 속에서  
 그래도 다시 태어나  
 몇만번째의 첫번째의 직립인간이 되어야 한다  
 아, 너의 삶이야말로  
 누구의 죽음 아니냐  
 누구의 삶이야말로  
 너의 죽음 아니냐  
 죽음을 주어라 삶을 주고받아라  
 그래도 다시 태어나  
 네가 가는 길 위의 쑥부쟁이로 피어나거라 새  
 가 되어라

## 어른 고은을 만나다

20160042 구인용

11 월 10 일, 난데없는 폭풍우가 지나갔던 날, KAIST 터만홀을 만년 노벨 문학상 후보가 찾았다. KAIST 에서 노벨상 관련 누군가를 초청한다면 보통 물리학상, 화학상 수상자를 모시고자 하겠지만 이번에는 문학상, 더욱이 수상자는 아닌 후보가 왔다는 점이 조금 특이하다. 학교를 찾은 강연자는 시인 고은 (본명 고은태). 본교의 새로 임명된 초빙석좌교수이자, ‘한국시 다시 읽기’ 수업에서 다루는 열두 명의 시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애초에 노벨상은 후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를 ‘만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수식하는 것은 옳지 않은,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짓이다. 그러나 내가 고은라는 이름을 접했던 모든 기사에서 그를 그렇게 불렀으니, 그의 글을 읽어본 적은 없는 나로서는 그를 겨우 그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귀인께서 삭막한 공대생들에게 ‘시와 세계’에 대해 강연을 하러 오셨다 하니, 원래 그 시간에 있던 수업마저 포기하며 큰 기대를 품고 터만홀로 향했다. 기대를 품은 이유가 그가 ‘만년 노벨 문학상 후보’여서는 아니었다 (관련해서는 시인보다는 번역자들에게 더 큰 경의를 표한다). 내가 기대를 품은 것은 다만, ~~존경해 마지않는~~ 전봉관 교수님이 선정한 12 인의 시인 중 하나를 직접 만나는 일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복층으로 이루어진 그 큰 강의실을 전부 채우고도 자리가 부족하여, 일부 인원은 옆 강의실에서 중계되는 영상을 통해 강연을 들어야 했을 정도로 강연은 인기가 많았다. 조금 늦게 갔더니 자리가 없었는데, 나는 그래도 직접 육성을 듣는 것을 선호하여 계단에 주저앉아 강연을 들었다.

시인이 직접 자신의 시를 낭송하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일인칭은 슬프다”를 낭독할 때, 뭔가 찌릿한 감흥이 들었다. 팔순을 넘긴 시인의 걸걸하게 쉬어버린 목소리는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시인이 ‘그 이래 / 시인들에게 온통 ‘나’ 뿐이다 / ‘나’로 시작해서 / ‘나’로 하루가 저물었다 / ‘나’ 이외에는 / 아무것도 없다 / 신도 ‘나’의 다른 이름이었다’고 호소하는 부분은 유독 분명하고 감동적이었다. ‘나’에 또박또박 힘을 주어 외치는 동안만큼은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관객에게 방백을 하는 느낌 (이 어떤 관객도 ‘나’이리라). 시에 완전히 몰입한 화자에 압도되어, 어느새 조연의 형태로 그 시 세계에 참여하여 방백을 엿듣는 듯한 체험이었다.

그 이후의 강연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과학과 시가 만나야 한다”는 명문을 남기고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언급하며 바다에 대한 담론을 펼치시다가 홍명희의 “임격정”을 추천하였다. 솔직히 내용은 크게 새길 만한 내용이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시인의 풍부한 표현력은 꽤 인상 깊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감탄사와 동작을 통한 부연이 함께했다. 킁킁대며 웃기도 하고, 침통한 표정을 짓기도 하며 감정 표현도 솔직하고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과연 詩人이구나 싶었다.

그렇게 시보다 시인을 먼저 만나는 기상천외한 경험 뒤에 비바람을 헤치고 동방을 찾은 나는 외투에 묻은 빗물을 털기도 전에 고은의 시집을 찾았다. 앉은 자리에서 시집을 한참 읽었다. 그리고, 조금 난감할 정도로 실망했다. 직접 대면해본 사람은 그래도 아주 완벽히 남은 아니게 되어서 일까, 나쁜 소리 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하지만 그의 글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했다. 와닿는 글을 찾기가 어려웠다.

신춘문에처럼 노벨 문학상도 선호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으나 싶을 정도로, 고은의 작품들은 앞서 읽었던 시인들의 작품들에 비해 특출한 편 같지는 않았다. 그토록 많은 글을 썼음에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 만한 작품은 ‘내려갈 때 보았네 / 올라갈 때 보지 못한 / 그 꽃 (그 꽃)’ 정도라니. “섬”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 그 섬에 가고 싶다’) 을 쓴 정현종과 같은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는 참 아쉬운 시인 아닌가. 속된 말로 ‘짬밥’ 좀 찬 시인이라 감히 저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까닭에 다소 과대평가가 이루어진 시인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호불호를 떠나서 인정해야 할 것은 그의 확실한 시풍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가 시인을 닮았다. 내용이 막 와닿지는 않을지 몰라도, 화자가 가진 열풍 같은 에너지가 끊임없이 활자 사이를 비집고 독자를 자극한다. 거의 모든 시가 웅변적이다. 서술어 등을 반복하며, 뚜렷한 정서에 도취한 채로 풍부한 표현을 통해 독자들에게 호소한다. 예컨대 “나의 소원”이라는 시는 펍 좋게 읽었는데, ‘*시시할 것 / 아주 시시할 것*’ 같이 강도만 높이며 반복하는 부분이라던가, ‘*가을이건 / 겨울이건 / 이듬해 유들어지는 봄이건 / 언제건*’ 같은 부분이 그러하다.

앞서 박노해를 다룰 때에도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나는 이미지를 덧칠해가며 독자들을 고무시키는 방식의 시 전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의 정서에 취해 선언하는 듯한 완결 어미를 취하는 형태는 김소월을 다룰 때 언급했던 바와 같이 자칫 ‘꼰대’처럼 읽히기도 한다. 그럼에도 고은을 ‘꼰대’로 놓은 채 미워하고 싶지는 않다. 그 이유는 박노해의 글에도 실망했지만,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까닭과 같다. 바로 고은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삶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먼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연식(年食)이다. 놀랍게도, 그의 생애는 여태껏 배운 아홉 명의 시인의 삶과 모두 겹쳐있다. 한국 근대 문학의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그는 원로 중의 원로 시인이 아닐 수 없다. (불혹을 넘기기 전의 김소월의 글과 고은의 글을 같은 ‘꼰대’로 동일 선상에 놓을 수는 없는 이유이다.) 무엇보다 시, 소설, 에세이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글을 집필한 그의 글에 대한 열정 역시 놀랍다. 그의 인간과 作文에 대한 순수한 애정은 강연에서도, 그의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표적인 작품이 30 권에 걸친 연작시 “만인보”이다. 25 년간 4000 편에 달하도록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한 문학적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지치지 않고 펜을 잡아 온 그의 삶과 글에 대한 열정 덕분일 것이다. 더불어 육중 생활 중에 국어사전을 달달 외웠다는 일화와 함께 전해지는 그의 풍부한 어휘 능력 역시 글에 대한 그의 내공을 드러낸다.

그리고 문학 이외의 면에서도 그는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떳떳한 삶을 살아왔다. 친밀한 관계였던 서정주가 독재 정권을 찬양하자 연을 끊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고은 시인은 독재 정권에 저항하며 민주 진보 진영과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즉, 정치 사회적 면에서도 고은은 나의 견해와 가치에 크게 反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반은 농담으로 없는 이야기이지만 엄청난 애주가이면서 이토록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는 모습은 가히 본받을 만하다.

그런 까닭에 고은의 글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의 강연을 들었던 것이 크다. 그는 잘 나가는 시인 이전에 ‘어른’ 같았다. 삶의 풍파를 겪으며, 그 과정을 글로 기록했기 때문에. 경험 많은 것과 지혜가 많은 것은 다르다. 그러나 경험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글의 형태로 표현해온 사람이라면 분명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고은에게서 나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자세로 다시 고은의 시들을 정독하니, 새겨두고 싶은 구절들이 간간히 보이는 글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이 전문 인용한 시 “그래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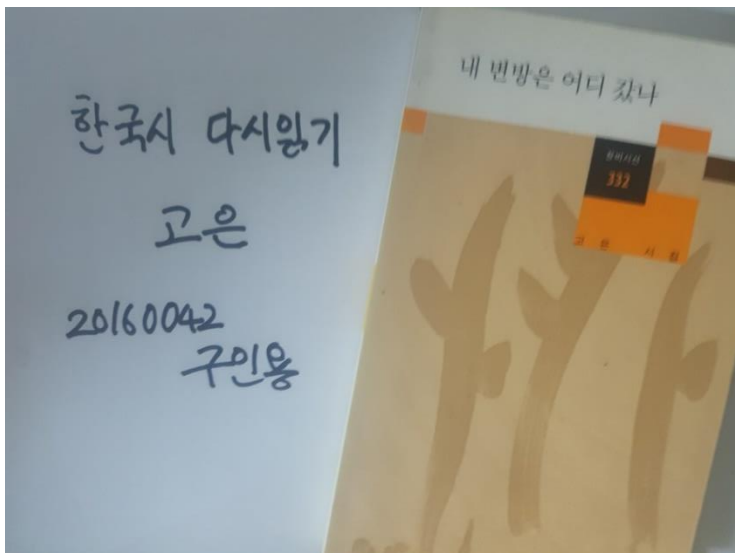
앞서 이야기했던 고은 시의 특징과 그의 글이 갖는 가치, 더불어 한 번쯤은 고민해볼 철학적인 사유들이 드러나는 글이었다. ‘*그래도 태어나야 한다*’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글은 ‘*아,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이유인 아기가 있다*’고 탄복하며 삶을 예찬한다. ‘*너에게 남은 꿈 있다 몸 뒤척여 그 꿈을 꾸어야 한다*’며, ‘*가장 작은 너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 / 그러나 바위의 슬픔으로 / 풀의 기쁨으로 / 하루하루를 노래해야 한다*’며 꿈과 삶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라고 당부한다. 또한 고은은 자신이 사랑했던 글을 이야기한다. ‘*너의 언어가 너 아니냐 / 명사들을 지켜야 한다 / (중략) / 도시의 밤에 사라져가는 / 동사들을 부사들을 슬픈 형용사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아, 너의 삶이야말로 / 누구의 죽음 아니냐 / 누구의 삶이야말로 / 너의 죽음 아니냐*’는 부분에서 깊은 통찰이 느껴졌다. 그렇다. 삶이란 나의 죽음 이전까지 타인의 죽음을 마주하는 일이다.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나의 죽음을 상상한다. 다시 누군가의 삶의 한 부분이 될 나의 죽음의 순간에 후회나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지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생각하게 된다.

애초에 살아가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은은 다음 행에서 힌트를 준다. ‘죽음을 주어라 삶을 주고 받아라. 삶을 주고받아야 한다.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며 삶을 일궈 나가야 한다. 태어나 사는 동안 꿈과 언어와 자신과 타인의 삶을 사랑할 것. 언젠가 아들을 낳으면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였다. 언제나 해답은 사랑이었다.’



← 계단에 앉아 강연을 듣는 것이 참 오랜만이다.



“내 변방은 어디 갔나”, 고은 (창비)

초판 1쇄 발행 / 2011년 7월 11일